

김명숙 늘휘무용단 ‘헌무다례(獻舞茶禮)’

9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서

불교의식을 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인의 위업을 기리며 그 정신을 본받고자 정성으로 다룬 차를 올리는 ‘헌다례’를 창작무용으로 선보인다. 창단 이후 올곧이 한국 창작 춤 무대를 지켜온 김명숙(이화여대 무용과 교수·늘휘무용단 예술감독) 늘휘무용단은 9월 19일 오후 4시·8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을 신작 ‘헌무다례(獻舞茶禮)’를 공연한다.

향·등·차·쌀·과일·꽃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육법공양’ 의식으로 몸짓을 통해 재해석한 ‘다례표연(茶禮表演)’이다. 손동작의 움직임은 가법계(擧)·공임없이 이어져 나아가는 동작(進)·부드러운 움직임(綿)·둥그런 원형의 이동(圓)·몸과 마음의 온화함(和)을 춤사위로 풀어간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정신으로 한국 춤의 우아하고도 유려한 의식무로 펼쳐 이번 공연은 전통의식 속에 발현되는 숭고한 마음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이번 공연은 김명숙 무용가의 서정미 넘치는 움직임에 불교 전통음악인 ‘영산회상’이 라이브로 연주된다. 명인 황병기 작곡의 ‘차왕이제’와 연극배우 박정자(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낭송,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제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성악가 윤인숙의 노래가 어울려 무르익어가는 가을, 불법의 정취를 만끽하게 한다.

(02)3277-2590 가연숙 기자



현대미술이 해석한 ‘심우장과 한용운’

“성북동 허름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다 보면 북향으로 난 창문에 청빈한 삶이 묻어나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가택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이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선생의 정신을 그 모습 그대로 현대미술을 통해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죠.”

복합문화공간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9월 30일까지 트렌드문화와 불교정신이 조우한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가 현대미술로 재해석돼 누군가의 나쁜 오우 혹은 치열한 일상을 잠시 달래준다. 신문사설·시·노래 가사 등을 구슬과 같은 점으로 기호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온 미술가 고산금(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서양화)이 펼치는 ‘만해 한용운 연구’展이다. 한용운 선생과 가택, ‘심우장’에 떠도는 시대정신으로 초대한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심우장처럼 오래된 유물을 현대에 재해석하는 작업은 외롭다. 현대미술가에 의해 작품화된 ‘님의 침묵’ ‘가가날에 대하여-동아일보·1926’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요인-동아일보·1927’ 등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의 추측을 시도하게 한다. ‘님의 침묵’ 초판본을 펼쳐 과거의 저렁저렁한 정신, 이 시대에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로 ‘한용운’을 재발견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심우장과 한용운 선생의 작품 세계와 사상을 전이(轉移)하여 시각적으로 재조명합니다. 1930년의 개화기 언어를 21세기 아이콘으로 단순 합리화해 그 의미를 전달하죠. 현실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직면했던 선생이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시인

으로 거듭났듯 그의 정신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작가의 전시의도다. 작가는 시의 느낌과 심우장의 개념을 추상적인 기호학의 설치로 반영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공통의 문자 개념을 넘어 지극히 개념적이고 사적인 기호 체계로 접근하는 이유다.

한용운 선생은 1920년대 감성주의를 배제한 선지식으로 불교적인 ‘님’을 자연으로 형상화하며 고도의 상징법을 구사한 ‘님의 침묵’을 완성했다.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제도를 노래한 시로 선생의 차가운 열정을 메탈 소재를 통해 표현했다.

작품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요인’의 경우 신문에 기고된 선생의 글을 치밀한 코바늘 뜨기 기법으로 선생의 내면을 표현에 내세운다. 코바늘 기법은 그녀의 일종의 ‘산수’ 개념이다. 진보적인 신여성성을 인정하고 글에 담긴 여성성의 부드러움을 살리는데 탁월한 소재다.

한용운 선생이 불성을 찾은 ‘심우(禪牛)’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가 또한 한용운 연구 작업을 통해 내면의 자아와 시대정신의 교감을 모색한다. 선생이 심우장을 지을 때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하여 고의로 복학을 선택한 것처럼 전시 공간의 모든 인테리어는 복합을 하고 왜곡된 ‘메탈시트’를 통해 남향의 풍경을 반사했다.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의 다양함이 표출하는 다의적인 의미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작업을 통해 해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한다. 작가가 시도하는 언어의 확장은 일법을 통한 나름의 결론으로 개념과 노동이 지닌 작업과정을 강조한 집약의 결정체다. (02)745-9731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천에 수(繡)놓은 미안마불교

한국불교미술관서 9월 28일까지

불탑과 승원의 나라로 국민의 89%가 불교신자인 미안마.

종로구 원서동 소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9월 28일까지 불교의 나라 미안마 ‘벽걸이 수(繡) 장식 특별전’을 제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지금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안마의 불교 세계를 소개하는 전사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동남아시아는 예부터 직물 공예가 발달한

나라로 조상을 향한 마음·종교·문화 등 불교 철화와 사상을 천위에 자수로 표현해 왔다.

석가모니 부다 전생애 선형을 베껴오는 내용을 묘사한 본생도(本生圖)를 비롯해 불보살 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미안마의 장식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수 장식 작품 외에도 미안마의 불상 설비단 등 불교 미술 품 6점도 함께 전시해 미안마인들의 삶과 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766-6000 가연숙 기자

사찰로 찾아가는 연극 ‘한바탕 꿈인 것을’

대전·울산 등 전국순회

“불교 언어들이 어렵고 난해하다고만 생각해 왔죠. 공연 연습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했고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갑니다.”

창작연극 ‘한바탕 꿈인 것을’(작·연출 정광진)은 나 자신을 위해 질주하는 한 평생 삶의 무상을 담은 연극이다. 주인공(선우·무명 스님) 배역을 맡은 배우 이정성씨는 “인간은 욕망과 집착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다”는 소감을 전한다.

사찰로 찾아가는 연극으로 진행되는 ‘한바탕 꿈인 것을’은 10월 2일 대전, 3일 청주, 19일 울산, 11월 1일 춘천 공연을 앞두고 현재 맹연습 중이다. 과거의 기억과 집착에 사로잡혀가는 현대인의 일상을 비추며 고즈넉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무대 위의 설비이다. 바닷가 작은 암자 해탈암을 배경으로 무아의 마애불과 마주하는 특별한 날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10)8975-5631 가연숙 기자

다들 카레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원주생식 |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김문기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 곡류 50%를 바삭시킨 원주반야생식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친화적까지 그스런이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생김새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원주생식은 6년여 동안의 숙성과 정성, 30% 수확량 원주생식 사용에 엄격한 관리를 거쳐, 엄격하게 선별하여, 원주생식에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공정, 유통과정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정성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 요구르트 1병+우유 200cc+원주생식 1스푼+원주생식 1병

소비자 장담서 (053)958-59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복.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 수정기공CD리본 (일금 75,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CD리본.COM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글니까야독송회 “맛지마니까야” 독송 법회 안내

동산만야회 한글니까야독송회에서는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인 범어 경전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쌍웃따니까야·맛지마니까야·앙감따라니까야·쿿다카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5부 니까야중 쌍웃따니까야 3권 독송을 마치고 가을 맛이 특강법회를 9월 <부처님의 제자들II>과 10월 <맛지마니까야> 독송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수행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대·소승불교교리의 원천이 되는 가르침들과 반야부의 중심사상인 공과 중도사상의 원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제공	개강일시 및 장소	지도법사
부처님의 제자들 II (번역/오원탁)	9월 4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이미경 교수
맛지마니까야 I (번역/전재성)	10월 2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동산한글니까야독송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
www.dongsanbud.net